

채소 종이포트묘 아주심기 작업 편리

농진청 “노동력 줄고
뿌리도 덜 손상
초기 밤 온도 최하 15도”



종이포트묘(사진 왼쪽)와 플러그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4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국내 보급 초기 단계인 종이포트의 특징과 종이포트를 이용한 채소 묘 기르기(육묘), 아주심기(정식) 후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종이포트 묘는 생분해성 종이를 원형으로 감싼 후 그 안에 상토(흙)를 채워 일정한 길이로 자른 뒤 전용 트레이(연결 판)에 담아 기른 묘를 말한다.

뿌리 부분이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셀룰로오스 재질로 감싸져 있어 아주심기 시 일반적인 육묘 용기(플러그 트레이, 10a당 14시간 정도 소요)보다 용기 제거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아낄 수 있고 뿌리 손상이 적다.

종이포트를 이용하면 육묘 단계에서도 결주(빈포기)나 생육이 늦은 식물체 분류가 쉬워 묘를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수목이나 화훼, 채소의 묘 생산에 종이포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오이, 토마토를 비롯해 도시농업용 잎채소 묘

생산에서 이용이 차츰 늘고 있다. 종이포트에 묘를 기르고 아주심기에 활용하려면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육묘 농가에서는 뿌리 부분 표면이 공기 중에 노출된 것을 고려해 플러그 트레이 묘보다 양·수분을 자주 공급해야 한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양액 공급과 관수(물대기) 횟수를 2배 정도 늘려준다. 일반 농가에서는 포트가 분해되기 전까지 발근(뿌리 내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종이 분해와 활착(뿌리 자람)이 촉진되

도록 아주심기 후 물을 충분히 주고, 초기 밤 온도를 15~25도(°C) 정도로 관리한다.

허윤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은 “종이포트 묘는 아주심기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돼 생산 농가뿐 아니라 도시농업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전용 상토를 개발하고, 적정 육묘 환경과 작물별 묘 출하 규격을 설정하는 한편, 아주심기 후 재배 관리 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판로 잃은 친환경농가 돕기

전국 초·중·고교 급식 중단 따라... 농식품부, 피해 물량 1164톤 판매 지원
이달 한달동안 소비촉진 계속 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중단에 따라 판로를 잃은 친환경 농가의 피해 물량 1,164톤의 판매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학교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대체 판로지원 및 소비 활성화 긴급대책을 3차례 마련, 피해물량(812톤/월)의 판매 지원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6주간 친환경농산물 피해 물량(1,218톤)의 96%인 1,164톤의 판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 주관으로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지난 3월9일 주간부터 추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약 30여 개 기관에서 착한 소비에 동참, 총 415톤의 친환경농산

물 꾸러미를 구매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 생협, 민간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등을 3월 2일 주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추진, 총 471톤을 판매했다.

또한 각 시·도 및 시·군에서도 지역별 피해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통업체나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피해물량 241톤의 판로 연결을 도모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7,509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채소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이를 위해 피해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37톤을 구매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중지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4월 한달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피해물량을 군부대·기업·공공급식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 합인판에 참여 혹은 공급단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차액) 일부를 20% 한도로 600톤 이상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통해 시·도별로 판매되는 꾸러미 약 212톤에 대해 배송비와 포장재비를 지원(건당 4천원)한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국민들의 ‘착한 소비’ 동참에 감사드리며, 급식이 재개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난해 열린 공간정보아카데미 수료식.

공간정보 인재 지속 양성

LX, 6월 1일까지 취업예정자 과정 지원서 접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올해에도 공간정보 인재양성에 앞장선다.

LX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김진수)는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젊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 계획’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30인이다. 공간정보 산업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졸업자나 학점을 이수한 예정자라면 오는 6월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서는 공간정보아카데미 홈페이지(<http://bsiedu.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6월 15일 발표되며, 본격적인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공간정보 기초이론과 자바프로그래밍, JDBC, 지도API 등 기본 프로그래밍을 토대로 한 실무교육과 팀별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에 한해 소정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수료생에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약기업에 우선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

김진수 원장은 “공간정보아카데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다방면의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부 “코로나19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행태의 변화를 비롯해 서비스 산업의 경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패턴과 업무형태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의 변혁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 확대,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활성화, ICT 융합기반 강화 등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확대와 규제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의 시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 산업이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서비스 업종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또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 노력과 함께 분야별 경쟁력 제고 전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미 스와프 자금 20억달러 공급... “외화자금 사정 양호”

한은, 17일 공급기로... 3차 입찰서 응찰 규모 미달

한국은행이 오는 17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중 20억달러를 시중에 공급한다.

한은은 14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대한 외화대출 경쟁입찰에서 응찰된 20억2500만달러를 전액 낙찰했다고 밝혔다. 1·2차에 이어 3차 입찰에서도 응찰액이 미달했다.한은은 이날 오전 10시~10시30분까지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4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요 모니터링에 기반해 여유있게 입찰 규모를 결정했다”

며 “응찰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국내 외화자금 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뒤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외화대출을 실시해왔다.

지난달 31일 첫 입찰 당시 응찰규모는 87억2000만달러로 공급 한도(120억달러)에 크게 못미쳤다.

이후 한은은 공급 규모를 2차 입찰

에서 87억2000만달러, 이번 입찰에서 40억달러로 축소했지만, 금융기관들의 자금 수요는 각 44억1500만달러, 20억2500만달러에 그쳤다.

한은은 향후 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은 151억6000만달러 규모다. 금융기관의 달러 수요가 공급 규모에 못미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입찰 규모가 더 축소되거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뉴시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